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878~1879년 천주교 박해 체험자 이 마르타의 회고를 다시 읽다 (1)

- 1878년 포도청에서 옥사한 이석교·이선일·이덕순 3부자[이 마르타의 父兄]에 대한 내용 소개 -

필자는 2024년 9월 30일 간행된 『교회사학』 25호에 「1860~70년대 선교사제 재입국 과정에서 조선인 신자들의 활동과 순교-최지혁과 이병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 4장 2절에서 1878년 리델 주교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1879년 드게트 신부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최지혁·이병교 등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옥중에서 치명(致命, 순교)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1878~1879년 당시 순교자들에 대해서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와 선교사제의 서한, 후대의 증언 기록 등을 전거로 삼았는데, 이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회고(구술) 자료도 활용했습니다. 1935년 당시 79세[1857년생]였던 ‘이 말다’[마르타의 구술[아들 김중묵이 필기]을 수록한 「박해의 전반생(前半生)을 회고함」[『가톨릭청년』 28호(1935년 9월), 82~94쪽]이 그것입니다.



『가톨릭청년』 28호(1935.9), 82쪽. 이 마르타[1857년생] 사진[확대]

이 마르타 가족은 1878년 당시 리델 주교 체포의 여파로 포졸들의 습격을 받았고 그의 부친과 남자형제 2명이 끌려가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자신은 1879년 드게트 신부와 같이 체포되었고, 서울로 끌려간 신부·남성 신자들과 달리 다른 여성 신자들과 함께 공주 감영 감옥에 갇혀 있다가 1880년 풀려났습니다. 이후 생활고와 격변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1935년 당시 원산부(元山府) 명석동(銘石洞, 현재 이북에 속한 강원도 원산시 명석동)에서 아들 김중묵(金重默, 당시 50세, 1886년생)과 함께 살다가 가톨릭청년사 주간 윤형중 신부의 부탁으로 ‘박해시기’를 겪어온 자신의 전반생을 회고했던 것입니다.

필자는 위의 논문 4장 2절에서 1878~1879년 천주교 박해와 순교자에 대해 이 마르타의 회고와 다른 자료

를 활용하여 서술했는데, 이 마르타 회고의 중요한 내용[다른 자료와 비교·대조]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와 다음 호의 지면을 통해 1878~1879년 천주교 박해와 연관된 이 마르타 회고 내용을 정리·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이전에 이 마르타의 가족이 용인 소우리[우명동(牛鳴洞)]에 자리잡다

이 마르타의 회고에 의하며, 그의 부친 이석교(李錫敎)는 ‘1800년 병진년’에 ‘부천군 계양면 굴현리’[현재 인천 계양구 굴현동]에서 시흥 말미[현재 서울 금천구 독산동]로 왔고 거기서 ‘요왕’[요한 사도]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미에서 태어난 이 마르타도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용인 웃동리 소우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우명동]로 이사해 살다가 1866년(병인) 천주교 박해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석교는 포졸에게 체포되어 능골[능원리] 주막까지 끌려갔다가 동네에서 세력이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배교하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이석교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베르뇌]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합니다.『가톨릭청년』 28, 83쪽.]

위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과 모순되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1800년의 간지는 경신(庚申)이며, 병진년이 맞다면 1796년 또는 1856년이 되어야 합니다. 1878년 1월 당시 용인 우명동(牛鳴洞)에 거주하다가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이석교(李石敎)와 이 마르타의 부친 이석교가 한자 이름(石과 錫)은 다르지만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우포청등록(右捕廳謄錄)』 기록대로 1878년 당시 이석교가 60세 [1819년생]였다면 그가 말미로 이주해서 세례를 받은 해는 ‘1856년 병진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체포된 이석교가 배교하고 풀려난 후 서울로 올라가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받았다는 ‘박해’가 1866년에 일어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1866년 천주교 박해의 특성은 맨 처음 서울에서 주교·신부가 체포된 후 주변 신자들과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석교가 용인에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것이 사실이라면 1866년보다는 그 이전 시기에 일어난 박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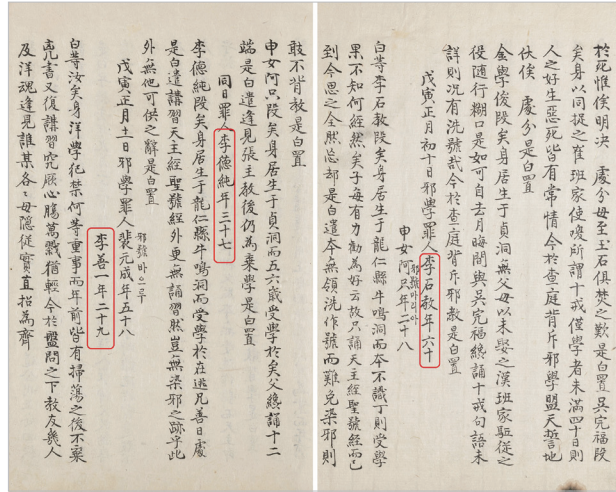
이 마르타의 부친과 오빠 2명이 체포되다 - 이석교 요한 사도, 이성일 토마스, 이성현 레오

이 마르타의 회고에 의하며, 1878년 음력 1월에 포졸들이 용인 소우리[우명동]에 와서 이 마르타 가족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마르타의 가족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 마르타의 부모인 이석교 부부, 이 마르타의 두 오빠 부부, 이 마르타와 그 여동생, 부모 없는 친척 아이[8세]가 그들이었습니다. 이외에 이 마르타에게 이종사촌 오빠인 이[경빈] 요한[이병교 레오의 아들]의 딸 이 막다리나[막달레나](나중에 남종삼의 아들 남규희와 결혼했고, 그 아들이 남상철 프란치스코 회장)도 이 마르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이 마르타 가족 중 이석교 요한 사도와 그 둘째 아들 이성현 레오만 관아로 압송해 갔고 동시에 가산을 전부 몰수했습니다. 때마침 이 마르타의 큰오빠인 이성일 토마스는 이종사촌누이의 결혼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일은 결혼식에 참석한 후 돌아오는 길에 포졸들이 그 지방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 동안 다른 일을 한 다음 집으로 향해 갔지만, ‘물흐레울고개’[현재 지명 미상]에서 그 부친이자 동생인 이석교와 이성현을 붙잡아가던 포졸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성일은 모른 체하고 피해가려 했지만 포졸들을 안내한 사람에 의해 들통이 나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석교 삼부자는 함께 그 지역 관청이 있는 용인읍으로 끌려갔고 그후 순교했는데, 자세한 상황은 당시 이 마르타가 알지 못한다고 구술했습니다.『가톨릭청년』 28, 83~84쪽.]

1879년 공주에서 체포된 이병교 레오는 포도청 심문에서 1876년경 드게트 신부를 모실 집을 구할 때 용인 우명동 사는 평소 친한 이가의 주선으로 용인 공수동(空藪洞, 현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의

집을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우포청등록』 기묘(1879년) 4월 1일(29책 2a) 이병교와 같이 잡혔던 드게트 신부도 포도청 심문에서 1876년 11월에 용인 공수동으로 옮겨왔다고 진술했습니다.『우포청등록』 기묘(1879년) 윤3월 29일(29책 1a) 이병교는 용인 우명동 사는 이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마르타의 부친인 이석교를 가리키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포도청 심문에서 이병교는 이가[이석교]에 대해 ‘평소 친했던 사람[素親人]’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인척(姻戚) 관계였습니다. 회고에 의하면, 이병교는 이 마르타의 이모부였습니다.『가톨릭청년』 28, 87쪽.] 즉, 이 마르타의 모친과 이병교의 아내는 자매였고, 이병교와 이석교는 동서 사이였습니다. 이병교의 아들 이경빈 요한[드게트 신부의 복새]은 이 마르타 남매와 이종사촌 사이였습니다.



『우포청등록』 27책 3b-4a - 이석교, 이덕순, 이선일 심문 기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석교, 이성일, 이성현은 포도청등록에 나오는 이석교, 이선일, 이덕순과 동일 인물이다

용인에서 붙잡혀 포도청으로 이송된 이석교 삼부자는 1878년 1월 10~11일(양력 2월 11~12일)에 걸쳐 『우포청등록』에 자신들의 진술 기록을 남겼습니다. 1월 10일 심문에서는 이석교(李石教)와 이덕순(李德純)은 자신들이 용인 우명동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석교는 아들의 권유로 천주교를 배웠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27책 3b-4a] 이덕순은 당시 도망중인 형 선일(善日)에게 천주교를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27책 4a]

다음 날인 1월 11일에는 이선일의 진술이 처음 나오는데, 그의 한자 이름은 선일(善-)이고, 용인 우명동에서 농사로 살아가는데 1877년 2월경 이종사촌인 이석여(李石汝)[이경빈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 있음]에게 천주교를 배웠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 마지막에는 죽더라고 배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신앙을 증거했습니다.[27책 4a-4b] 이어서 이석교와 이덕순의 두 번째 진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 이선일을 통해 천주교를 배웠으며, 죽어도 배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27책 6a~7a] 위의 진술을 통해 1월 10일 심문 당시 체포되지 않았던 이선일이 곧바로 체포되어 1월 11일 심문을 받았고, 그날 삼부자가 모두 신앙을 지켜 배교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포청등록』에는 이덕순[37세]이 이선일[29세]보다 나이가 많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덕순의 두 차례 진술 모두에서 이선일이 ‘형(兄)’이라고 나오므로, 위의 나이는 오류로 보입니다. 이선일과 이덕순이 39세와 37세, 또는 29세와 27세였을 것입니다. 1857년생인 이 마르타가 1878년 당시 22세였으므로, 그 오빠인 이선일과 이덕순이 20대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이선일[29세]은 1850년생이고, 이덕순[27세]은 1852년생일 것입니다.

이 마르타의 회고와 『우포청등록』에 나오는 삼부자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부친 이석교는 가운데 한자만 다르고, 큰오빠인 이성일은 이선일과 가운데 음이 다르며, 둘째오빠 이성현과 이덕순은 그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덕순’이 성현의 다른 이름[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의 유사성 외에 거주지와 체포된 시점, 옥중에서 순교했다는 공통점에서 볼 때 회고와 『우포청등록』에 나오는 이석교 삼부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타의 회고와 『우포청등록』 기록을 비교했을 때 또 하나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이 마르타 가족의 입교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회고에서는 ‘1800년[1856년의 오류로 보임] 병진년’에 부친 이석교가 먼저 세례를 받고 나머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반면, 삼부자의 포도청 진술에서는 이선일이 1877년경 이종사촌에게 먼저 천주교를 배웠고 그가 부친과 동생에게 천주교를 전파했으며, 삼부자 모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르타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포도청 심문 과정에서 천주교 입교와 관련된 다른 신자들[선교사제]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석교, 이성일[이선일], 이성현[이덕순] 삼부자가 옥중 순교하다

이 마르타는 자신의 부친과 두 오빠가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었고 옥중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관변 측 자료에도 이석교 삼부자가 심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석교의 동서이자 이성일·이성현[이선일·이덕순]의 이모부인 이병교의 진술을 통해 그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묘(1879년) 4월 1일(양력 5월 21일) 이병교의 두 번째 진술에서 “우명동이 삼부자가 작년(1878년) [음력] 3월에 붙잡혀 처형[伏法]되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서한과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1878년 “리텔 주교와 함께 구속되었던 신자들이 거의 모두가 고통과 학대로 인하여 옥사하였다 한다”는 내용이 1878년 조선대목구 보고서에 나옵니다.[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敎區年報(1)』, 명동천주교회, 1984, 11쪽.] 더 구체적으로는 ‘용인 능골의 이 서방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옥살이 끝에 굶어 죽었다’는 내용이 블랑 신부가 1878년 11월 25일 전라도 고산 안심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514)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드게트 신부가 전라도 배재에서 1878년 7월 16일에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 580, f.388)에서도 ‘옥중에서 변문 연락원 최 서방[최치화]와 함께 능골 이 서방이 아사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용인 능골 이 서방’은 이석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 ...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4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